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다'라는 의미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두 번 하기 때문에 붙여진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두 번이나, 그것도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의 인구 조사 모두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모든 자(1:3)" "이십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26:4)" 하셨으니 정확하게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군대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한번 정도야 필요하겠지만 두 번이나 군대를 계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고,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40년의 시간이 흘러 그 다음세대가 자라나 다시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처음세대가 모두 죽고 다음세대가 자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여 반대하는 민족도 있고, 실제로 전쟁을 하는 민족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발람과 발락도 있었습니다.

오늘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싯딤에 머물고 있습니다. 싯딤은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싯딤에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라는 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 놓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25:1)."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육신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인 우상숭배를 동시에 범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압은 어떤 민족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당할 때 롯이 자신의 큰딸에게서 난 모압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친척관계에 있는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예언한 것과는 달리 모압을 향해서는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을 떠나 그모스와 바알 그리고 몰렉을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대립하여 괴롭히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싯딤에서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먹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하였습니다. 예전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라고 되어있고 새번역 성경은 "이스라엘은 바알브올과 결합하였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 단순히 가담하였거니 몰라서,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이 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대표적인 범죄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편기자는 시106:28-29에서 "그들이 또 브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격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호세아 선지자도 호9:10 후반부에서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증하여졌도다"라고 기록함으로 이 사건을 후대에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 중에는, 모압 왕 발락이 브올의 아들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결국에 발락의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을 반역하여 모압이 숭배하는 바알브올에 가담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간음하기 위해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인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죽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서 이스라엘을 속죄함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로 유혹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브올을 섬기는 일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욱 성도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12:12 후반절 말씀에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처음 인구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60만 명 넘는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군대가 나가 싸워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그 분만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여 저주하며,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악의 본성도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삶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살면 결국에 우리를 기다리는 곳은 지옥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그 예수를 믿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군사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위해 우리가 장착해야 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 분만을 신뢰하여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